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공항 수유실 마련 의무화로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3866/A.7813)에 따라, 공항은 일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

Kathy Hochul 주지사는 특정 공항에 시선을 피해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의 뉴욕 이동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안(S.3866/A.7813)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을 개정하여 보안 검색대 통과 후 수유 가능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보육 친화적인 공항을 만들도록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통받았으며, 최근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와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공 공간에서 사람들은 수유할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이번 법안은 직장과 공공 시설에 수유실 조성 등 대규모 조치를 통해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수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Timothy M. Kenned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법안과 마찬가지로 뉴욕의 어머니가 겪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구의 주민 다수와의 대화를 거쳐 이번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동이 잦은 워킹맘으로서, Rachel Jackson은 공항에서 수유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함께 이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버펄로의 John R. Oishei 아동 병원(John R. Oishei Children's Hospital)을 비롯해 이번 법안이 주 전역의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 뉴욕 전역의 수많은 어머니 등 많은 파트너들의 지원을 통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해 어머니의 이동을 쉽게 하고 이들이 직장 and 보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ichaëlle C.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공항의 지정된 공간을 수유실 등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곳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보육을 지원합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은 아이의 개발 과정, 특히 영아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법안을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공항을 통해 이동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뉴욕 주민에게 커다란 변화이며, 세계를 이동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